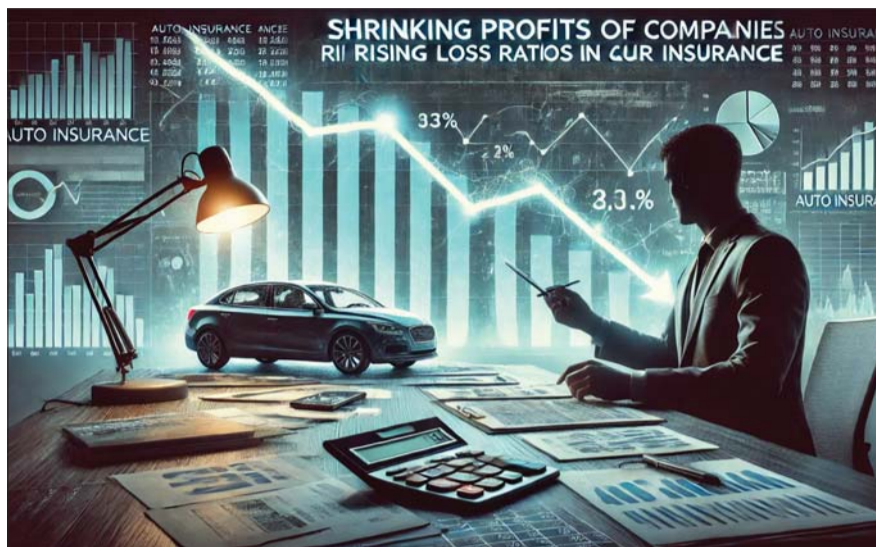


車보험료 인하로 손해를 ‘쑥’... 손보사 손익 ‘뚝’

빅4 손보사, 車보험 손익 일제 감소
삼성화재 2분기 손익 전년비 반토막
손해율 평균 82.2%... 3.8%p 급등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불가피



챗 GPT가 생성한 자동차보험 손익 감소 이미지.

연일 역대급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에서 발목이 잡혔다. 연이은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손해를 상승으로 악재가 겹치면서 자동차보험 손익이 줄어 들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익은 모두 감소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화재의 경우 올 상반기 차보험 손익은 1490억원으로 전년 동기 2020억원 대비 26.1% 줄었다. 2분기만 봐도 차보험 손익은 470억원으로 950억원이던 전년 대비 50.9% 감소해 반토막났다.

DB손해보험의 올 상반기 차보험 손익은 1620억원으로 전년 1820억원 대비 10.7% 감소했다. 원수보험료는 전년 2조3020억원에서 2조2700억원으로 1.4% 줄어 들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 1분기 78.2%에서 2분기 79.2%로 상승했다.

현대해상은 상반기 차보험 손익으로 전년 1489억원 대비 44.6% 감소한 825억원을 거뒀다. 2분기만 보면 401억원으로 전년 동기 734억원 대비 45.4%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KB손해보험도 상반기 352억원의 차보험 손익을 냈는데 전년 705억원 대비 50.1% 감소해 반토막났다.

손보업계의 차보험 손익이 쪼그라든 요인으로는 몇년간 차보험료 인하로 인한 손해율 상승이 꼽힌다. 손보사들은 코로나19 이후 2022년부터 3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 왔다. 2022년

1.2~1.4%, 2023년 2~2.1% 인하했다. 올해 2월에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상생금융으로 2.5~3% 가량 인하폭을 대폭 키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속된 차보험료 인하로 인해 손해율이 상승해 차보험 손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인하의 여파로 차보험 손해율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차보험 손해율은 손익분기점인 8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차보험 손해율 악화 우려 커지고 있다.

지난달 대형 4개 손보사의 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2.2%로 전년 동월 78.4% 대비 3.8%p포인트(p) 급등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KB손해보험 84.4% ▲현대해상 82.4% ▲삼성화재 81.6% ▲DB손해보험 80.5% 등 손해율이 모두 80%를 넘어섰다. 4개 손보사의 1~7월 누계 손해율도 작년 77.5%에서 올해 79.9%로 2.4%p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말과 내년 초에는 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술술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해율 상승을 감안하면 하반기 차보험 손익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사들은 차보험료 인상카드를 꺼낼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자동차 침수 피해 같은 부분이 있어서 7월 차보험 손해액이 평가될 하반기에는 차보험 손익은 적자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며 “손해율 방어 등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신경을 쓰겠지만 전체적인 손익 저하를 막을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부분은 하반기로 갈수록 명확하게 나타나 내년도 차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화재 ‘착한골프보험’ 라운딩 중 상해 보장

삼성화재가 골프보험을 출시했다.

◆ 기존 대비 보험료 47% 인하

삼성화재는 골프 라운딩의 핵심 담보들을 보장하는 다이렉트 전용 신상품 ‘착한골프보험’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골프 라운딩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후유장애와배상책임, 휴일원 축하금을 보장한다. 고객의 스케줄에 맞게 라운딩을 보장하는 ‘일권’과 한번 가입 후 시즌 내내 보장받을 수 있는 ‘시즌권’(1~12개월) 중 선택해 가입 가능하다.

기본담보인 ‘골프 중 상해후유장애’가 1억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골프 중 배상책임손해’ 담보는 업계 최대 금액인 1억원으로 보장을 확대했다. 골프 라운딩 시 가장 선호하는 ‘휴일원’ 특약은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보장 범위를 늘려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KB손해보험이 이만기·이희준이 함께 출연한 ‘만기왔다이렉트, 만기가 코앞’ 바이럴 영상을 공개했다.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바이럴 영상 이만기·이희준 열연

KB손해보험이 바이럴 영상을 공개했다.

◆ 만기왔다이렉트·만기가 코앞 영상

KB손해보험은 지난 4월부터 KB손해보험 다이렉트의 새 모델로 발탁된 이만기와 최근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 영상에 출연한 이희준이 함께 열연한 ‘만기왔다이렉트, 만기가 코앞’ 바이럴 영상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KB손해보험 다이렉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만기왔다이렉트’ 편은 천하장사 씨름선수 출신 방송인 이만기 씨가 ‘만기왔다이렉트 송’에 맞춰 춤을 춰 자동차보험 만기를 앞둔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과 만나는 모습이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그려졌다.

흥국생명 ‘다사랑더건강보험’ 이력 고지기간 세분화

흥국생명이 건강보험 신상품을 출시했다.

◆ 건강 유지할수록 보험료 할인

흥국생명은 고객이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고지의무기간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무)흥국생명 다사랑THE건강할때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입원 및 수술 이력을 알리는 고지의무기간을 6년부터 10년까지 세분화했다. 고객이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합한 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건강을 유지할수록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를 제공한다. 가입 1년 이후부터 매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4차례에 걸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주형 기자

“부실우려 등급 부동산PF 사업장, 6개월 내 정리를”

김병환 금융위원장
“상호금융권 외형 성장에만 치중
지배구조 등 규제체계 마련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상호금융권의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부실 우려 등급인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5곳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가 참석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이 외

형 성장에만 치중하고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분한 자산 운용 역량과 자금운용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신경쟁에 집중해 자산규모가 관리역량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됐다”며 “이로 인해 반복적인 위기상황에 놓이고 있는 만큼 건전성을 회복하고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부동산 PF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부실우려 등급인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완료해 달라”며 “부실채권 정리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부실채권 정리방안은 총 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을 30%로 제한하고, 합계액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부실채권을 빠르게 매각해 부동산업·건설업과 관련한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동일업무·동일규제에 따라 규제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상호금융권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다”며 “앞으로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정리 등 각 분야별로 규

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의 여신심사 능력을 고도화하고, 자산 관리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리한 수신환경으로 자산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스템을 혁신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고도화 하는 한편 자산 관리 역량을 확충해 운용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상호금융권은 현재의 위기상황 발생에 대해 반성하며, 금융위의 건전성 관리 강화노력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수도권도 ‘국평’ 분양가 10억 시대

북수원이목 대방 디에트르 더 리체 I 1층 전용 84㎡ 분양가 10억2053만원

공사비 급등 등으로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수도권에서도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10억원 이하로는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경기도 수원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음에도 저층의 분양가가 10억원을 웃돌았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들어서는 ‘북수원이목지구 대방 디에트르 더 리체 I’의 분양가는 전용 84㎡는 최고가 기준 10억7473만원이다. 테라스 등 혜택

이 있는 최상층은 14억9673만원에 달한다.

북수원이목지구 대방 디에트르 더 리체 I 은이목지구도시개발사업 A4블록으로 총 768세대 규모다. 전 세대가 84㎡ 단일 평형이다. 공공택지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84㎡B 타입은 분양가가 1층도 10억2053만원이며, 중층인 8~10층이 10억4223만원이다. 최상층은 14억9673만원이다. 84㎡C 타입의 경우 1층 분양가가 9억7676만원이며, 11~15층은 10억786만원이다.

서호천을 사이에 두고 인근한 ‘수원 SK스카이뷰’의 84㎡가 올해 6월 8억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분양 홈페이지

3500만원에 거래됐다. 수원SK스카이뷰는 2013년에 입주했으며, 지난 2021년 10월에 최고 10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주변 신축으로는 올해 입주한 ‘북수원자이렉스비아’의 84㎡가 8억1380만원에 거래됐다.

수원시 전체로 보면 영통구에서 ‘광교중흥S클래스’가 지난달 16억5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북수원이목지구 대방 디에트르 더 리체 I 청약은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3일 2순위를 접수한다. 입주는 2027년 9월 예정이다. 해당주택한 10년, 전매제한 3년이 걸려 있지만 거주 의무기간은 없다.

/안상미 기자 smahn10@